

기록사랑마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군 기록사랑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an Archive Village Project and Its Improvement Plan: The Case of I County

오 유 진 (Yu-Jin Oh)** , 한 희 정 (Hee-Jung Han)***
육 혜 인 (Hye-In Yuk)**** , 김 수 정 (Soojung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면담 결과 |
| 2. 기록사랑마을 사업 개요 | 5. 현안과 개선방안 |
| 3. 현황조사 | 6. 결론 |

<초 록>

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운영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예산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현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중 I군을 방문하여 접근성, 전시내용 및 방법, 시설 및 장비 등을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3명의 지역 관계자, 8명의 마을주민, 1명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마을에서 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 및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기록사랑마을, 민간기록, 마을기록, 기록정보서비스, 보존기록관리

<ABSTRACT>

In 2008,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itiated the Archive Village proje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aluable private records and enhancing the awareness of archival culture. To justify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 and determine its futur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ject. To do that, the researchers visited an Archive Village in I county and examined its accessibility, exhibition contents, facilities, equipment, etc., through observation.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s well as eight residents and three persons who were involved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Archive Village in I coun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Archive Village in I county.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elp other villages plan acquisi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how to make important private records in local areas available.

Keywords: Archive Village, private records, local rec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 archive management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gloos31@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freebirdhhj@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bloomhi6@gmail.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kimsoojung@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4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5년 5월 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1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7-30,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2.00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록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록의 수집,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공공기록물에 집중되어 있던 기록 관리의 대상이 민간기록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에서는 이전에 공공기관이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관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도 국가 차원에서 수집·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기록원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은 총 229,799점으로, 여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대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시킬 만한 가치가 인정되는 고(古)기록물, 근·현대기록물, 사진필름 등이 포함되어 있다.¹⁾ 그러나 국내 기록관리의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각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민간기록물을 모두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06년에 개정된 기록관리법에서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의 설치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아직 한 군데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간기록물의 경우, 그 기록이 생산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지원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이란 ‘마을 단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기록정보의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록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2014년까지 총 7개의 마을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에 제8호 마을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의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한 향후 지속될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기록사랑마을의 운영 현황과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

1)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특수기록물 보유현황 민간기록물 참고 (검색일자: 2015년 2월 23일)
<http://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계자 및 주민과의 면담을 수행하여 1) 기록물 수집, 2) 기록물 관리, 3) 기록물 서비스 및 활용, 4)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인식, 5) 개선 방향의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해당 사업에서의 국가기록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온 기록사랑마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2 선행연구

기록사랑마을은 공공기록물이 아닌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러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은 ‘공동체 아카이브’나 ‘마을 아카이브’ 혹은 ‘일상 아카이브’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공동체 아카이빙’이나 ‘일상아카이빙’이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이라면 기록사랑마을은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위로부터의 아카이빙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이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기록물 혹은 마을구성원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등의 개념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민간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상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먼저 이영남(2008)은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기록관, 역사관을 통합한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마을 운동의 중심점을 ‘마을아르페’라고 칭하면서, 마을아르페가 기록관리법에 언급되어 있지만 요원한 일로 비춰지는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기록관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인권단체,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소수자 공동체 등에 대한 중간 단계의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영남, 2012).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적용되는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 이전에 먼저 내부의 공동체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협업으로 공동체와 공동체 기록관리에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박건홍(2011)은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에는 무엇을 위한 아카이브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아카이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하며, 기록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향과 미래 전략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서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아카이브에 대한 철학과 지향의 문제이며, 민주주의 시대에는 ‘저시적’국가 아카이브에 대비되는 온전한 ‘일상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를 기록화하기 위한 아카이브는 “집단과 개인의 기억이 만나는 곳,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이 만나서 지역의 전체상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지역민들이 능동적으로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로컬

리티 아카이브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형 아카이브의 조건으로 기록의 분산 보관과 통합적 활용을 지원하며, 사회·역사적, 혹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집합체에 대한 맥락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기록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카이브로 설정하였다. 윤은하(2012)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의 기록관리 방법론이 공동체 기록을 관리하는데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록학자는 개별적 공동체의 고유한 인식체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많은 경우 공동체 기록 관리의 과정에 기록 생산자의 참여가 필수적 요소가 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과 아키비스트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며,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영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기록관리 방법론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간기록물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록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즉, 민간기록물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에는 그 내부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공공기록 관리와는 차원이 다른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가진 경험과 그들의 기록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들 민간기록을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공공영역 중심의 기록 관리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간기록물에 대한 연

구도 보다 다각화되고 있다. 먼저 민간기록의 수집에 관한 연구로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화경(2012)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김지현(2014)이 있다. 전자는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수집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해외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는 관 주도의 국내 기록 관리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관리적 개념에서 접근한 연구로 이보람 외(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민간 아카이브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체계적 기록관리가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개소프트웨어 기록시스템(AtoM)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록물 활용에 대한 연구로써 지역사 인물을 선정하여 기록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한 현문수와 김동철(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지역사 인물을 기록화하고 이에 기반을 둔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 송정숙 외(2014)는 부산항 관련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오메카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디지털 전시를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민간기록 관련 연구들은 주로 마을이나 공동체 아카이빙이 공공기록물과 구분되는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집이나 관리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민간기록을 다루는 기록사랑마을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시에 기록사랑마을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3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 중 한 곳인 I군을 선정하여 현황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I군 기록사랑마을은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해 온 생활사박물관을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된 곳이다. I군 기록사랑마을은 비교적 최근에 개관하였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사업에 대한 최근 정책 및 지원이 가장 잘 반영되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았던 만큼 기록사랑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또한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군

기록사랑마을을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개요와 지정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열람을 통해 기록사랑마을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사랑마을의 선정 방식, 지원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I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영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기록사랑마을 현황조사 항목은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와 박물관 전시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이해영 외, 2007; 손일화, 2009; 문창현 외, 2009; 정재훈 외, 2004; 임지은, 2010; 이대희 외, 2011; 이경숙 외, 2011)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I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최종 조사 항목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영역을 포함하며, 물리적 접근성에서부터 체험 프로그램 제공 여부까지 운영과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였다.

<표 1> 기록사랑마을 현황조사 항목

영역	항목	항목 예시
전시내용 및 방법	기록물의 다양성	내용 다양성, 흥미성, 주제와 연관성
	기록물의 이해성	전시 해설판의 이해용이성, 교육적 유익성
	진열방식의 편리성	진열방식의 관람 편리성, 진열방식의 흥미성
시설 및 장비	관리의 적절성	청결도, 규모, 온도, 조명과 채광의 적절성
	보안성	재난대비 계획, 보존과 관리시설, 접근의 통제
	편의성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및 편의시설, 장애인 및 노약자시설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위치, 교통편의성, 이용가능시간, 위치 및 이용안내정보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	전시관안내표지판, 열람실배치도, 전시물안내책자(가이드 북, 브로셔)
	온라인 접근성	홈페이지 운영
직원서비스 및 홍보활동	직원서비스, 방문객 유치활동, 대외홍보 프로그램,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	

셋째, 지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록사랑마을 선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사업 운영의 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사업이 지역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은 5개의 영역, 즉 1) 기록물 수집, 2) 기록물 관리, 3) 기록물 서비스 및 활용, 4)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인식, 5) 개선방향을 포함하였다. 면담대상자는 I군 기록사랑마을의 기반인 생활사박물관의 개관을 담당한 전 면장(ID-1), 현재 기록사랑마을 전시관을 관리하고 있는 면사무소 직원 1명(ID-2),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담당 기록연구사 1명(ID-3)으로 구성되었다. 전 면장(ID-1)은 민간기록물들을 직접 수집하여 지금의 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I군의 민간기록물 수집과정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면사무소 직원(ID-2)은 I군 소유의 건물에 해당 박물관이 입주해 있는 관계로 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다. 기록연구사(ID-3)는 I군 전체 기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I군 기록사랑마을 신청부터 개관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록사랑마을 주민 8명을 대상으로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면담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기록사랑마을 사업에서의 국가기록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내 기록사랑마을 담당자 1명(ID-4)과의 면담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ID-1,2,3과 주민 대상 면담은 2014년 2월 12일에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였고,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은 2015년 1월 9일에 전화인터뷰로 실시하였다. 면담방식은 개방형 질문을 사

용함으로써 피면담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모든 면담은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이후에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 기록사랑마을 사업 개요

국가기록원에서는 민간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요 민간기록유산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기록사랑마을 지정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개의 마을을 지정하여 7년 동안 총 7개의 마을이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어 민간영역 중요 기록물의 접근과 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다. 2014년까지의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황은 <표 2>와 같다.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는 <그림 1>과 같이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실시되며, 각 단계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단계는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로 먼저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 후보지 수요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공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록원에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취합한다.

다음 선정단계에서는 접수된 마을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후보 마을을 선정한다. 이후 현장실사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기록사랑마을 신청서 및 기초자료 제출 내용을 근거로 평

〈표 2〉 2008-2014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주요 내용
제1호 기록사랑마을 ('08.1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함백역	석탄채굴 중단으로 철거된 역사를 주민들이 모금하여 부지 매입 및 역사 복원
제2호 기록사랑마을 ('09.09)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마을	파주마을 한국전쟁과 수해를 겪으면서 수도권 신도시로 발전하였으며, 파주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전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 발굴
제3호 기록사랑마을 ('10.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대정읍 안성마을	대정읍 안성마을 140여년(1780~1922) 간의 호적중초(마을 생활상 복원 가능 기록) 및 절목, 내 고장 역사 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현대 기록물 발굴
제4호 기록사랑마을 ('11.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기북면 덕동마을 140여년(1780~1922) 간의 호적중초(마을 생활상 복원 가능 기록) 및 절목, 내 고장 역사 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현대 기록물 발굴
제5호 기록사랑마을 ('12.12.)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	득량면 강골마을 마을 내 소재한 주요 전통가옥 내 1900년대 초기 고문서 및 추수대장, 영농일기, 편지, 선거관련 기록물 등 500여점 보유
제6호 기록사랑마을 ('13.06)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원천마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농기구, 생활도구 등 700여점 보유
제7호 기록사랑마을 ('14.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군항마을	진해 근대사 사진류, 해군관련 인쇄물 및 기념품, 진해 생활역사물류 보유

(출처: 국가기록원, 2014.7 재편집)



〈그림 1〉 기록사랑마을 지정과정

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지표에는 기록물의 특성, 합목적성, 지역적 특성, 자발적 의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표 3〉 참고).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서면평가 내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단계에서는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지원 협의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민간기록물을 발굴하고, 시설을 조

성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지원은 크게 민간기록물 발굴·시설 조성, 보존 관리 및 컨설팅 지원, MOU 체결·기념행사 개최 등으로 이루어진다. 민간기록물 발굴·시설 조성에서는 중요 민간 기록물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과 마을 내 전시관 및 보존시설의 조성, 기록물의 복제, 현판과 영상물 등 전시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존 관

〈표 3〉 기록사랑마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목적성	사업성공 담보	• 운영인력 및 보존·전시 공간 확보 여부	20	30
		• 기존 유사 문화사업과의 연계성	10	
지역적 특성	차별성	• 마을 특유의 역사·문화 보유 여부	15	25
	지리적 특성(지역안배)	• 지리적 접근 용이성 • 미지정 권역마을(충북, 경남)	10	
기록물 특성	기록물 내용	• 중요한 보존가치 보유 인정 여부	15	25
	기록물 수량	• 보존대상 기록물 일정 수량 이상 소장	10	
자발적 의지	자치단체 의지	• 사업이해도 및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10	20
	마을주민 의지	• 주민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 및 협력도	10	
총 계			100	

(출처: 국가기록원, 2014.7 재편집)

리 및 컨설팅 지원에서는 기록물의 소득이나 탈산, 복원·복제 등 전문적인 보존처리와 기록물의 재질별 보존관리 방법, 보존상자의 제작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된다. 더불어 MOU를 체결하고,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판 제막식과 기념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국가기록원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록사랑마을의 구축을 통해 해당 공간이 지역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민간분야 중요기록물의 멸실 방지 및 관광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기관과 마을 간의 기록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록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민간기록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사랑마을의 조성으로 인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여 마을운영 체험프로그램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현황조사

본 절에서는 I군의 생활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3.1 전시내용 및 방법

I군 생활사박물관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민간 생활용품들이 소장되어 있어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소장 전시유물은 650여 점으로 농기구류, 생활용품류, 도자기류, 고서류, 사무용품류, 고가구류, 화폐류, 수장고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민선면장 사용관인, 초·중등교과서, 호구단자 등 다양한 마을민간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기록사랑마을의 설립목적에 맞게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2층 전시물은 유리관 안에 전시물을 배치함으로써 기록물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간단한 안내판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층에는 다수의 전시박물관들이 선반에 전시된 채 햇빛이나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들 전시물에 대한 안내판도 없어 1층 전시물 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 및 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3.2 시설 및 장비

본 전시관은 원래 복지회관 건물을 생활사박물관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후에는 2층 일부만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대로 2층 일부에만 전시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을 뿐 나머지 공간은 먼지나 채광, 습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1층의 경우 창문 바로 옆에 전시를 위한 선반이 위치해 있었으며, 이들 선반에는 민간기록물들이 먼지가 쌓인 채로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전시되어 있어 전시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시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공간의 전시물들에 대해서도 접근 통제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었으며, 잠금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난과 같은 분실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시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잠금장치, CCTV와 같은 보안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냉·난방기는 상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부족하였다. 복지회관이었던 당시에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사용되었던 교육 공간 및 주차장 시설은 1층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관리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옆 건물에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다.

3.3 접근성

현재 기록사랑마을은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록사랑마을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 전화번호 및 이용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온라인상에서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정보는 기록사랑마을을 방문했던 경험을 담은 개인 블로그와 카페 글, 뉴스 등에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는 '기록관리 소개란' 하위메뉴인 '민간기록물 코너'에 기록사랑마을 지정 현황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으나, 각 마을에 대한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²⁾

한편, I군 기록사랑마을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 전 자체적으로 설립한 생활사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사박물관에 나온 안내정보와 기록사랑마을 안내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기록사랑마을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I군 기록사랑마을로의 물리적 접근성을 살펴보면, 기록사랑마을까지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 등도 갖춰져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기에는 편리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도로 표지판에 기록사랑마을을 안내하는 표시가 없었으며, 해당 전시관에도 기록사랑마을 현판이

2)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기록관리란? → 민간기록물 코너 → 기록사랑마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색일자: 2015년 2월 23일) <http://www.archives.go.kr/next/data/archivesVillage.do>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기록사랑마을임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전시관은 먼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평일 하절기의 경우 9시~18시, 동절기의 경우 9시~17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예약 문의를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일에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전시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3.4 직원서비스 및 홍보 활동

전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은 전무하였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와 서비

스에 관련한 지식을 갖춘 인력이나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시물 안내서비스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기록사랑마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략 등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홍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며, 취약한 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으로 I군 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I군 기록사랑마을 현황조사 결과

영역	항목	현황분석 결과
전시내용 및 방법	기록물의 다양성	• 수집 및 전시된 마을기록물들의 시대적 범위와 유형이 폭넓고 다양하여 기록사랑마을의 설립 목적에 부합
	기록물의 이해성	• 1층 전시물에 대한 별도의 안내판은 없음 • 2층 전시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안내판이 구비되어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별도의 해설 요원이 없어 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진열방식의 편리성	• 1층 전시물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선반에 무작위로 진열되어 있어, 마을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2층 일부 전시물은 관람자의 편리성, 흥미성에 따라 전시
시설 및 장비	관리의 적절성	• 1층은 먼지, 온도, 조명, 채광, 습도에 대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음 • 2층은 국가기록원 예산을 지원받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안성	• 재난대비 관련 기본적인 소방도구는 갖추어져 있음 • 보존 및 관리, 보안시설이 부족하여 전시물 훼손이나 분실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됨
	편의성	• 주차장, 화장실, 교육 공간은 구비되어 있음 • 이용자 편의시설, 관리실,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 부재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 기록사랑마을의 지리적 위치상 대중교통 이용 불편 • 주말/공휴일에는 예약 문의로 운영되므로 휴일 관람은 불편함 • 위치, 전화번호 및 이용시간 등의 안내정보 부족
	기록물정보 대한 접근성	• 전시관 안내표지판, 열람실배치도, 전시물 안내책자 등 구비되어 있음
	온라인 접근성	• 기록사랑마을 전용 홈페이지가 없음
직원서비스 및 홍보활동		• 전문 인력의 부재로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는 미흡 •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관련 정책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전무 • 방문객 유치를 위한 대외홍보 프로그램 없음

4. 면담 결과

본 절에서는 지역 관계자, 마을 주민 및 국가 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1) 기록물 수집, 2) 기록물 관리, 3) 기록물 서비스 및 활용, 4)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인식, 5) 개선방향으로 나누어 기록사랑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4.1 기록물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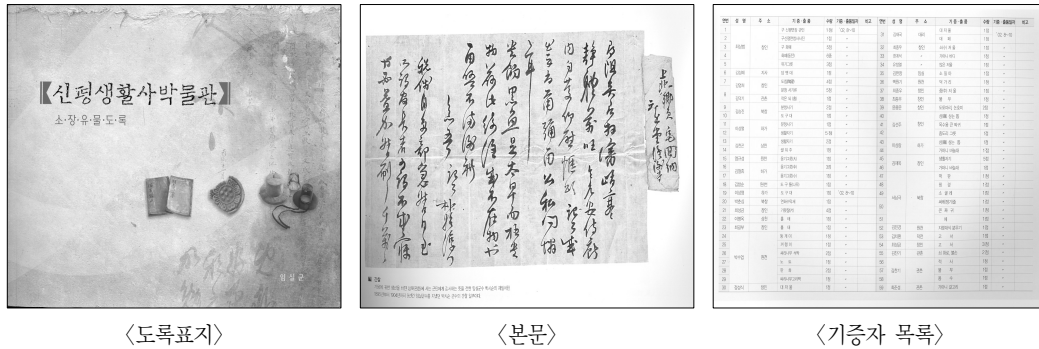
기록사랑마을은 방치된 채 사라지고 있는 민간 소장 기록 유산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러한 민간 소장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I군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지역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 공무원들과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사 박물관을 건설하였고, 이를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로 선정함으로써 탄생한 곳이다. 마을 기록물을 수집하여 전시하게 된 동기는 마을 기록물들을 모아서 마을의 정체성을 높이고 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민간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기록물 수집 방식은 당시 면장님과 직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민간 기록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 수집하거나 이장회의나 수소문을 통해 민간기록물들을 확인하여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군 지원이나 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면장의 강한 의지와 직원들 및 주민들이 한 뜻을 모아 독

립적으로 설립한 진정한 민(民) 주도의 생활사 박물관이 설립된 것이다. 이들의 순수한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멸실될 수도 있었던 민간 기록물들이 수집되어 보존될 수 있었으며, 기록사랑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는 민간 소장 중요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면장님이 오시자마자 마을 주민들하고, 향우회 그분들에게 집에 못 쓰는 물건들 있으면 달라 기증을 부탁한다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싹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나 타 기관에서 협조 없이 본인이 스스로 하셔가지고 비용 부담도 전혀 없었어요. 군에서 보조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여기 복지회관을 개조해 가지고 만들었어요...”(ID-2)

물론 마을기록물 수집을 시작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마을주민들의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마을기록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전시관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이후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박물관 측에서 개별 기증자와 별도로 기증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수집된 기록물들을 모두 접수를 받아 기증자의 이름과 품목 및 수량을 기록하여 도록을 만들고 편찬하였으며, 기증품에도



〈그림 2〉 도록과 기증자 목록
(출처: 전북역사문화학회, 신평생활사박물관, 2007)

기증자의 이름을 표시하여 함께 전시한 결과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림 2〉 참고).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기증 문화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증문화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 기록물 수집 및 전시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 등은 별도로 없었으며, 지역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물 수집에 대해서는) 약정서 MOU 체결한 거. 거기에 보면 다 우리의 의무로 되어있어요...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습니다... 기록사랑마을 발전방안 간담회에서도 국가기록원측은 지역 자체 예산을 가지고 기록사랑마을을 더 크게 하라는 식의 입장표명만 있었습니다.”(ID-3)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중요 민간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발굴하여 민간기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며 기록사랑마을 지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4.2 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이 I군 기록사랑마을을 위해 지원한 내용은 마을기록전시관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제작·설치, 지정 행사 및 전시관 개관 행사 개최, 보존처리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4천 5백만 원으로, 이것은 초기 1호, 2호 기록사랑마을 지원 예산보다 축소된 것일 뿐만 아니라 1회에 한정하여 지급된 예산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박물관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박물관 입구에 세워진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 비석과 개관식 기념품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

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해당 지자체 역시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하여 별도의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본 사업의 성과와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사랑마을의 전시관을 조성하는 데 일차적인 지원을 한 후, 추후에 기록물 보존관리 및 복원을 지원하고 기록물 소득 및 보존용품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I군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기존 생활사박물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2층 일부만 리모델링 지원을 받았다. 그 외 국가기록원은 전문 보존 처리와 복제 및 보존 상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나타내는 현관 설치 및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기록사랑마을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I군 관계자가 1회 참가한 적이 있었으나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국가기록원과 해당 지자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기록사랑마을, 혹은 기록사랑마을 간에 정기적인 기획 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도 현재로서는 매우 미흡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전시관 개관 행사 등은 함께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전시관 건물의 유지보수만 담당하였을 뿐 추가적으로 전시기록물을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나 연계 사업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ID-1은 과거 박물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I군 기록사랑마을의 기록물을 분류하고 엑셀작업을 하였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 관리·운영 및 보존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표 5> 기록사랑마을 관리지원체계

구분	담당업무	업무내용
국가기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물 설치 지원 • 기념행사 지원 • 언론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록전시관 조성 및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기획 및 예산 지원 - 전시기록물 복제 및 보존 처리 지원 •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군과 MOU 준비 및 행사 기획 • 언론 홍보 등 실시
I군(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전시콘텐츠 제공 및 운영 지원 • 기념행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콘텐츠 제공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록물 선별 및 검토 - 전시 콘텐츠 수집 및 제공 - 전시기록물 교체 및 기획전 등 운영 •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행사 협조
기록사랑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장소 지원 • 전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록전시관 장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및 기록물 전시 장소 협조 • 마을기록전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및 기록사랑마을의 지속적 운영

(출처: 국가기록원, 2012 재편집)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타 기록사랑마을을 방문하여 관리 현황을 살펴 보거나 인근 대학의 문화인류학과 교수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며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4.3 기록물 서비스 및 활용

현재 I군 기록사랑마을은 기록사랑마을의 자체 기록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I군의 경우 기록사랑마을을 담당하는 인력이 건물을 관리하는 면사무소 직원과 해당 지자체 기록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 이 기록연구사는 혼자서 기록사랑마을 지원 신청부터 개관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I군 전체의 기록물 관리가 본래 담당 주업무이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을 위한 서비스 업무까지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특별전 시전 기획이나 시행, 견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변 관광지와 연계 등 기록사랑마을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홈페이지 개설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록연구사는 무엇보다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지자체나 지역의원 등의 관심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지금 따로 진행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주변 지역과 연계한 서비스 정책 등은) 없습니다...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처음 개관하고 몇 년 있다가 전에

면장님들이 예산 국회의원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없어가지고...”(ID-2)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기록사랑마을측에서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은 지원할 수 없지만 콘텐츠 혹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콘텐츠기획과나 공개서비스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록사랑마을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는 생활사박물관의 이용이 저조하지만 개관 초기에는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로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였다고 한다. 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용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기록사랑마을의 의미와 목적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초기에는) 지방지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알아가지고 오고 그랬었죠... (그 때는)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군인도 오고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자기 어렸을 적 쓰던 물건들이잖아요, 대부분 물건들이 6.25전 일제시대, 한 1930~40년대 그 정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추억 삼아서 많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엔 거의 없어요...”(ID-2)

4.4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인식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해 본 결과 마을주민들의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대상자들 중 일부는 면사무소 옆에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TV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을이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방송국에서 전시관에 대해 홍보한 적이 있다던가, 아는 동네주민이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파편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기록사랑마을의 목적이나 민간기록물의 의미 또한 알지 못하였다.

“(본 마을이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전시관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르겠네? 기록.. 기록사랑?”(주민1)

따라서 기록사랑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 주민들의 기록사랑마을과 민간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기록원 담당자와 생활사박물관을 세운 지역 관계자들은 모두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가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양되고, 잠재된 기록물을 저희가 발굴된 것을 전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ID-4)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지역향토 기록물을 가져다가 수집해서 전시하고 모아놓고 하는게 의미는 있는데... 그냥 관리를 피상적으로 보는데 작년에 S지역에 해바라기 씨를 뿌린 적이 있었어. 전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 뺄을 해바라기로 만든다고 그리고 나서 불과한 두 번씩 나가고 그랬으니깐 1,000명 정도가 나와서 한 거야. 씨뿌리고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무나 해. 근데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관리하려면 사람 인건비 있어야하지. 그 다음에 인건비에 따르는 물건.. 운영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안하려고 하지. 힘들어.”(ID-3)

씨를 뿌리는 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죽어버리듯이 기록사랑마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기록사랑마을이라는 씨앗이 여기 저기 뿌려졌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쇠퇴해가고 있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초기 기록사랑마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들인 수많은 노력과 자원들이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사라지기 전에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4.5 개선방향

기록사랑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거나 필요한지에 대해 관계자들에

게 질문을 던진 결과 예상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이었다.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대를 위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부재와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더불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각 지자체와 기록연구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에서 민간기록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보시면 기록사랑마을과 관련된 합당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법을 개정하려고도 했지만, 민간기록물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록연구사 분들이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하는 분들) 이해를 많이 시키셔야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싸워나갈 숙제인거죠.”(ID-4)

또한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록사랑마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제주시를 예로 들면서 다른 기록사랑마을에서도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기록사랑마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김지환, 2013). 국가기록원 측은 기록사랑마을 관계자들과의 간

담회에서도 제주시를 하나의 모델 사례로 소개하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예산 외에도 지역 관계자들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나 학계에서 적절한 관심과 지원 등을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I군 기록사랑마을은 물리적 위치상 외부인이 많이 찾아오기 어렵지만, 주변에 절과 호랑이바위, 고인돌, 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물론 관련 문화원, 문화재연구원, 인근 대학 등에서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 외 기록사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과거에 한 상업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해당 사이트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싶지만 연로한 관계자들이 홈페이지를 개발·관리할 능력도 부족하고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담당자도 기록사랑마을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링크할 수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하였다.

5. 현안과 개선방안

본 연구의 조사 결과, I군이 당면한 현안은 크게 1) 예산 부족, 2) 인력 및 전문성 부족,

3) 서비스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낮은 활용도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정리하고 각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5.1 예산 부족

먼저 I군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문제는 예산 부족임에 분명하나 이에 대한 기록사랑마을과 국가기록원측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기록사랑마을 전시관이 개관할 때까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민간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발굴된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기타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관리와 같은 사후 업무를 위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또한 제주도 기록사랑마을을 모범사례로 주목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록연구사가 행정직 공무원들, 특히 예산 집행 결정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기록사랑마을 측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지원이 일회성이며 기록사랑마을 1호, 2호 때보다 축소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지원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전시관 입구의 기록사랑마을 선정 기념 돌 비석과 우산 기념품 등의 홍보비로 지출되고 결국 전시관의 일부는 리모델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본래 공공기록 관리를 주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최소한 1호, 2호 기록사랑마을 사업 때만큼 재정 지원을 해서 선정된 마을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지원금을 마을 기록관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록연구사 혼자 힘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얻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기록 관리를 위한 재정 마련을 개인의 노력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도 차원에서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1년 12월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록물 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지자체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미 형성되었고 민간기록 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에는 기록사랑마을 주민들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끝에 1억 2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마을의 예산 3천 6백만원을 보태 기록관을 확장하기도 하였다(문정임, 2012). 결국 지자체 및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록사랑마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군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으로 인지될 뿐,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군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꾸준히 이해시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단기간에 이루어 지기는 힘들겠지만, 마을 주민들, 기록연구사, 국가기록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접촉함으로써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5.2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현안은 기록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 측에서는 국가기록원과의 간담회가 1회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운영 및 보존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 어떠한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국가기록원 측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측에서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자문을 구해올 경우에 콘텐츠기획과나 공개서비스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 사업 운영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록사랑마을을 통해 민간영역 중요 기록물의 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간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마을 단위의 기록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으로 역할을 다지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기록사랑마을의 자문 요청에 응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

시 말해, 국가기록원은 현재 전시관 개관 행사 개최와 홍보에 치우쳐 있는 기록사랑마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록사랑마을의 사후 관리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록사랑마을이 각 지자체별로 소속된 기록연구사와 행정직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통일성있는 관리 지침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록물의 특성상 마을 별 특성을 모두 반영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국가기록원에서 민간기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록사랑마을과 지자체 내에 위치한 지역 대학과의 협업 가능성도 검토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중요 민간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및 개발을 위해 국가기록원, 대학, 기록사랑마을이 협업하여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기록물 연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을 관련 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무대로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기록사랑마을의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3 낮은 활용도

현재 I군 기록사랑마을의 기록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지리적 위치상 물리적인 접근성이 낮고 휴

일에는 전시관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기 쉽지 않다. 둘째,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즐기고 배울만한 요소가 적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록사랑마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이 민간 기록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하고, 기록사랑마을을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마을의 주변 문화 관광자원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 개관식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면서 정작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핵심적인 홈페이지 구축에는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홈페이지 개발과 구축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비하여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기록사랑마을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에는 기록사랑마을과 관련된 인물, 유적지, 자연물, 음식 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를 지역 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시켜 활성화시킴으로써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기록사랑마을의 물리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

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열람가능하게 하여 전자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기록사랑마을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7개의 기록사랑마을은 서로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우수 서비스 사례 발굴, 마을간 순회전시 및 공동 행사 기획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사랑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기록원에서 원래 의도한 사업 내용 중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록사랑마을 활용 개선방안은 사실상 앞서 지적한 예산 부족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6.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관리가 발전해 왔으며 최근 들어 민간기록물로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지원 사업은 중요 민간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대를 꾀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시도이자 출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사랑마을 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오늘날 기록사랑마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인 I군은 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전시관 운영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보존 환경이 열악하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 기록원은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기록사랑마을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서로 만족할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 그리고 지역 관계자 및 국가 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기록사랑마을은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지자체와 마을공동체는 그 역할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록사랑마을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향후 국가기록원,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기록사랑마을을 운영하되 이들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기록원은 현재 전시관 개관 행사 개최와 홍보에 치우쳐 있는 기록사랑마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사후 관리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이 1) 기록사랑마을 사업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2) 기록사랑마을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3) 민간기록물 관리지침을 개발·배포하여 민간기록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4) 기록사랑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사후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민간 소장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기록사랑마을에서 소장 기록물을 성공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외부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기록관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정된 이후에도 1) 지역주민들에게 마을 기록물의 중요성이나 가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2)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사업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3)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기록사랑마을을 비롯한 민간기록의 발굴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들이 기록사랑마을과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각 지자체와 지자체 내에 위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운영 인력을 교육함으로써 기록사랑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된 곳 중 한 곳인 I군 기록사랑마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I군 기록사랑마을이 기록사랑마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 사업의 진행과정과 그 효과성에 대

해 검증하기 위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다각적이면서 심층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장차 지방 민간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후속연구로는 기록사랑마을이 외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

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활기록과 박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은 기록사랑마을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기록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민간 기록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2.4). 12년도 기록사랑마을 지정 계획. 성남: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4.7). 중요 민간기록물 발굴지원('16년 제9호)을 위한 기록사랑마을 발굴조사 계획. 성남: 국가기록원.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페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27.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김지환 (2013. 9. 18). 제주도, 민간기록물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제주도민일보.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문정임 (2012. 2. 19). 제3호 기록사랑마을 내달 전시관 열고 발굴영역 확대. 제주도민일보.
- 문창현, 정성미 (2009). 박물관 관광 서비스품질의 관람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 history museum과 art museum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1), 3-27.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손일화 (2009). 문화관광지 체험 척도 개발: 부산 박물관 방문객 평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1), 181-202.
- 송정숙, 허정숙, 이예린 (2014).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27-151.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경숙, 이연화 (2011). 전시회 참가자의 서비스품질, 서비스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2010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428-439.
- 이대휘, 신재기 (2011). 전시회 서비스품질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전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4), 505-525.
-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연구, 39, 193-228.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5.
- 이영남 (2012).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3, 3-42.
- 이혜영, 김영은, 김은영, 김현지, 남경희, 이미라, 이은화, 전혜영, 최정윤 (2007).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방향: 기록관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5-42.
- 임지은 (2010.7). 박물관 유형에 따른 서비스품질 지각 및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전주시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전북 학술발표대회, 171-182.
- 전북역사문화학회, 신평생활사박물관 (2007). 신평생활사박물관 소장유물도록. 임실: 임실군.
- 정재훈, 이경훈 (2004). 박물관 관람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6), 109-116.
- 현문수, 김동철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박기종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195-231.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검색일자: 2015. 2. 23. <http://www.archives.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nbuk Nation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y & Life History Museum of Shin-Pyeong (2007). List of artifacts owned by Life History Museum of Shinpyeong. Imsil: Imsil-Gun.
- Hyun, Moon-Soo & Kim, Dong-Chul (2013). A Study on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for Documenting Local Historical Charac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6, 195-231.
- Jeong, Jae-Hoon & Lee, Kyung Hoon (2004).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Visitors' Satisfaction in Museum.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6), 109-116.
- Kim, Hwa-Ky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 Kim, Ji-Hwan (2013, September 18). Jeju Island arranged private records management system systematically. *The Jejudomin News*.
- Kim, Ji-Hyun (2014).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05-126.
- Kwak, Kun-Hong (2011).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 Archives of everyday lif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9, 3-27.
- Lee, Bo-Ram, Hwang, Jin-Hyun, Park, Min-Yung, Kim, Hyung-Hee, Choi, Dong-Woon, Choi, Yun-Jin, & Yim, Jin-Hee (2014). A Study on Usability of Open Source Software for Developing Records System: A Case of ICA Ato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9, 193-228.
- Lee, Dae-Hui & Sin, Jae-Ki (2011).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trade show industry through service quality evaluation.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2(4), 505-525.
- Lee, Yeong-Nam (2008).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18, 221-255.
- Lee, Yeong-Nam (2012).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3, 3-42.
- Lim, Ji-Eun (2010, July). A Study on Service Qualit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by Types of Museums: Focusing on Jeonju Touris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Jeon-Buk, 171-182.
- Moon, Chang-Hyun & Jung, Sung-Mi (2009). A Study on the Tourist's Satisfaction with the SERVPERF of the Museum - Case Study of Jeonju National Museum and Jeonbuk Province Art Museum.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7(1), 3-27.
- Mun, Jeong-Im (2012, February 19). No.3 Archival Village opens hall and enlargement of excavation area next month. *The Jejudomin News*.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4). 2012 The Archive Village Project Plan. Seong-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4.7). The Excavation Plan of Archive Village Project for Important Private Records Excavation Support (2016 No.9). Seong-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 Rieh, Hae-young, Kim, Yung-Eun, Kim, Eun-Yung, Kim, Hyun-Ji, Nam, Kyung-Hee, Lee, Mi-La, Lee, Eun-Hwa, Jeon, Hye-Yung, & Choi, Jeong-Yoon (2007).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formation Services in Records Centers and Archives: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25-42.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2, 3-44.
- Sohn, Il-Hwa (2009). Development of Experience Scale in Cultural Touring Spots: Evaluations of Busan Museums Visitors. *Journal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3(1), 181-202.
- Song, Jung-Sook, Heo, Jeong-Sook, & Lee, Yea-Lin (2014). Digital Image Archiving Methodology on the Port of Busan: A Case Study Using an Open-Source Archiving Softw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27-151.
- Yee, Kyeong-Sook & Lee, Yeon-Hwa (2011). Impacts on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on Visitors 'Satisfaction in Exhibi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3), 428-439.
- Yo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33, 3-37.